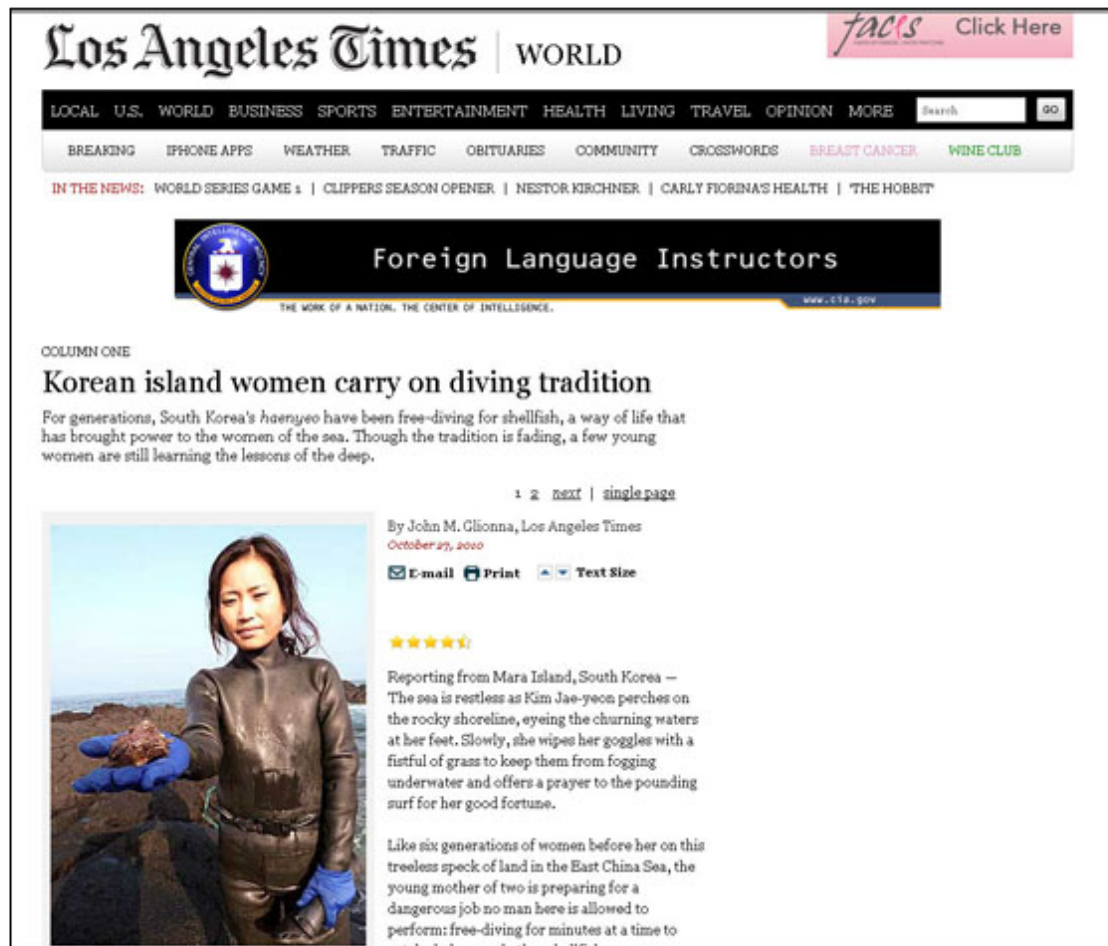


# 美 LA타임스 제주잠녀 가치 조명

‘문화유산’ 강조 차별화

등록 : 2010년 10월 28일 (목) 16:13:58  
최종수정 : 2010년 10월 28일 (목) 16:13:5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mailto:popmee@hanmail.net)



LA타임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제주잠녀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잠녀의 전통적 의미는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연결고리로 그 중요성을 부각하는 등 지역내 제주잠녀 대한 소극적 평가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

미국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7일자 1면 중앙의 '칼럼 원' 고정란과 5면 전면을 할애한 '전통에 몸을 담그다'라는 제목의 잠문의 기사를 통해 '제주 잠녀'를 조명했다. 여성 중심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넘어 어머니에서 딸로 바다의 삶을 이어온 전통 측면을 강조하는 등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차별을 보였다.

기사 내용 중에는 현대적 어선들 때문에 해산물 채취량이 줄어 그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등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제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잠녀 중 최연소인 마라도 김재연씨(33)의 입을 빌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녀 일이 선조와 자신을 이어주기 때문"이라는 물질 이유를 밝히는 등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자 지키고 보존해야할 가치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mailto:popmee@jemin.com)